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창립식 및 포럼


- 일시 : 2012년 3월 9일(금) 오후3시
- 장소 : 서울영동교회
- 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목회사회학연구소 · 크리스천라이프센터

순서 및 목차

1부. Life Hope 창립식

| | | |
|---------------|-------|---|
| (1) 인사말 및 격려사 | ----- | 2 |
| (2) 비전 제시 | ----- | 3 |
| (3) 조직 | ----- | 4 |
| (4) 위촉장 수여 | | |

2부. Life Hope 창립포럼

| | | |
|--|-------|----|
| (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대응 | ----- | 7 |
| (2) 청소년 자살심리와 대처방안 | ----- | 11 |
| (3) 사례를 통한 청소년 자살과 자살위기의 예방대책 | ----- | 24 |
| (4) 질의응답 및 교제 | | |
|  단체소개 | ----- | 34 |

Life Hope “창립식”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사회 : 신산철 목사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 인사말** 박상철 목사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공동대표)
- 격려사** 이문희 목사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자문위원)
- 비전제시** 조성돈 교수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장)
- 조직** 신산철 목사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 위촉장수여**

[1] 공동대표

> 공동대표 : 노용찬 박상철 유영권

[2] 위원장

> 교육위원장 : 장진원

상담위원장 : 박희종

연구위원장 : 박지영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비전제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사회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 중요한 관심과 주제이다. 교회도 이제 이러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평화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중심 가치로 가지고 있다. 또한 교회는 교육의 현장과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관계와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일을 섬기게 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살예방을 위해서 교회와 교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연구활동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신학적 논의들을 이끌고, 동시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연구와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자살 위험자들과 예비자들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기회를 갖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을 치유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사명선언문 (Mission Stat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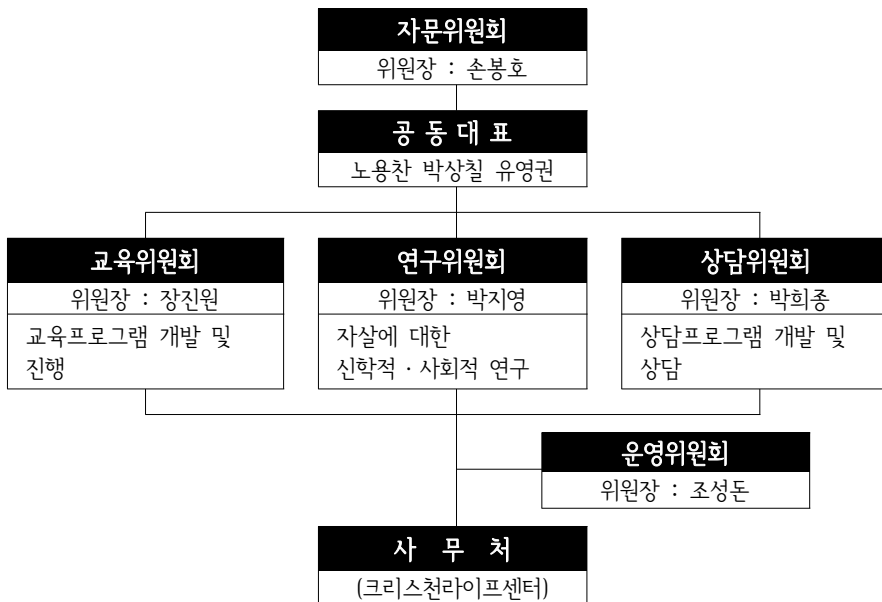
Life Hope 는 이 땅에 상처입고 소외된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기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가치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빌2:1-2)

주요 사역 및 핵심가치 (Ministry & Value)

1. **돌봄과 나눔** / 자살의 아픔가운데에 있는 상처 입은 개인과 공동체를 돌보며, 나눔 속에서 영적 회복과 치유적 사명을 감당한다.(상담사역)
2. **교육과 연합** / 기독교적 사상과 가치관을 통한 자살예방교육과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다.(교육사역)
3. **연구와 교류** / 이론과 실천적 연구를 통해서 자살예방활동을 지원하며,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통전적인 예방활동을 감당한다.(연구사역)
4. **복음과 삶** /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가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사명을 감당한다.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조직



■ 자문위원회

손봉호(자문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김동호(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 김명호(국제제자훈련원 대표)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목사) 이문희(맑은샘광천교회 담임목사) 이영문(경기도자살예방센터장) 정주채(용인향상교회 담임목사) 조경열(아현감리교회 담임목사) 조흥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규섭(한국자살예방협회장) 하상훈(한국생명의전화 원장)

■ 공동대표

노용찬(서호교회 담임목사) 박상철(성수교회 담임목사) 유영권(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

■ 교육위원회

장진원(교육위원장, 굿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수정(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윤영(국립서울병원 기획홍보과장) 신동식(빛과소금교회 목사) 유 경(죽음준비학교) 윤용범(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무관) 임동진(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최명민(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덕규(백석대 실용음악과 교수)

■ 연구위원회

박지영(연구위원장,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진(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충환(드류대학교 박사) 박종환(실천신대 예배학 교수) 심민수(지구촌교회 목회리더십연구소장) 이상원(총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이승진(실천신대 설교학 교수) 이종국(용인정신병원 정신과전문) 정재영(실천신대 종교사회학 교수) 신원하(고려신학대 교수)

■ 상담위원회

박희종(상담위원장, 좋은42심리상담센터장) 강현숙(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부 강사) 손혜경(행복한가정세움연구소장) 이영미(한국인터서브 이사) 이인필(백석상담센터 상담원) 정 진(마음쉼터 with house 센터장) 조태례(전 성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연수(한빛청소년대안센터 소장) 최의현(연세로DEM정신과의원장) 황동한(부산 함께하는교회 담임목사)

■ 운영위원회

조성돈(운영위원장, 목회사회학연구소장) 신산철(크리스천라이프센터 사무총장) 조제호(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Life Hope “창립포럼”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사회 : 조성돈 교수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장)

□ 포럼주제

“ 청소년 자살예방과 한국교회의 역할 ”

□ 주제발제

- (1) 안병은 /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대응
- (2) 유영권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
 - 청소년의 자살심리와 대처방안
- (3) 최연수 /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장
 - 사례를 통한 청소년 자살과 자살위기의 예방대책

주제발제-(1) 안병은 /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대응 ”

청소년 자살에 대한 단상

- 청소년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이란?
- '죽고 싶다.' vs. '죽어도 상관없다.'
- 참 다양한 이유로 죽어간다. 하지만 그 근원적 이유는 무엇일까?
- 청소년의 자살은 충동적이다. 글썄!?!?!?!
-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 청소년에게 한국은 살만한 세상일까?



청소년 자살예방의 현재

- 갈 곳 없는 아이들
- 목소리만 높은 자살예방
- 자살예방법 시행



청소년 자살예방의 문제

- 청소년 자살의 이해
- 청소년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수준
-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재



청소년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적 제언

- 부처 간 관계개선과 협조 필요
- 청소년 정신건강 교과목 지정
- 교내 카운슬러의 전문화
- 가용 가능한 위기관리팀이 생성



청소년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적 제언

- 자살예방 통합기구의 역할 강조
- 서비스의 조직화
- 자살예방 데이터 정리
- 심리학적 부검 필요



교회의 역할

- 삶과 죽음에 관한 본질적인 접근
- 생명존중, 삶에 대한 태도를 고민해야 한다
- 기독교적 자살에 대한 전통적 이해
- 자살 생존자 및 유가족을 위한 활동
- 떠밀기식 사업, 정치적 게임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



모두들 잠든 새벽 세시 나는 옥상에 올라왔죠
 하얀색 십자가, 붉은빛 십자가
 우리 학교가 보여요
 조용한 교정이, 어두운 교실이
 엄마, 미안해요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잘못도 나는 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미워하나요? 난 매일밤 무서운 꿈에 울어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꿈에서도 난 달아날 수 없어요

사실은 난 더 살고 싶었어요
 이제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사실은 난 더 살고 싶었어요
 이제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모두들 잠든 새벽 세시 나는 옥상에 올라왔죠
 하얀색 십자가, 붉은빛 십자가
 우리 학교가 보여요
 내일 아침이면 아무도 다시는 나를 나를....

청소년 자살에 대한 단상

- 청소년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이란?
- '죽고 싶다.' vs. '죽어도 상관없다.'
- 참 다양한 이유로 죽어간다. 하지만 그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 청소년의 자살은 충동적이다. 글썄!?!?!?!?
-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 청소년에게 한국은 살만한 세상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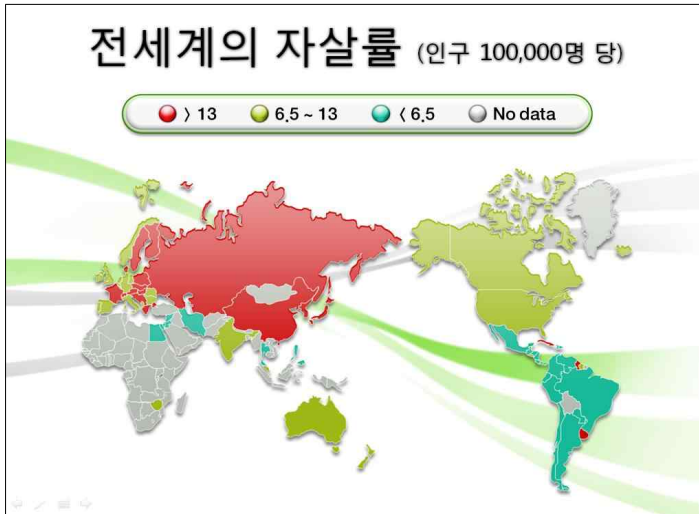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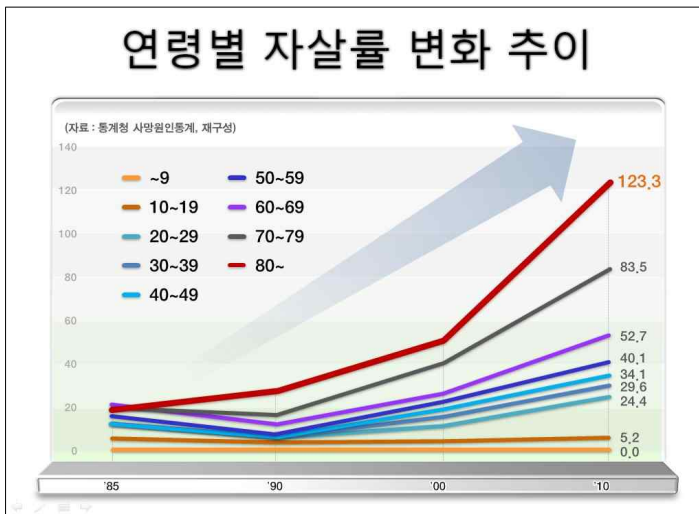
주제발제-(2) 유영권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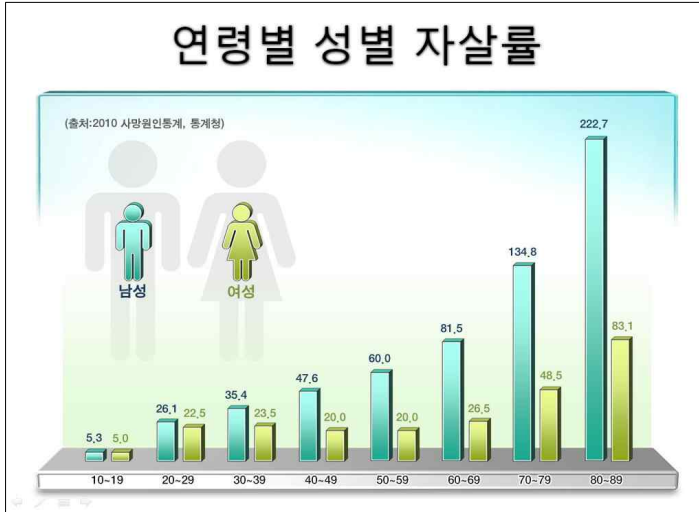
“ 청소년 자살심리와 대처방안 ”











연령대별 사망 원인

| 연령 | 1위 | | 2위 | | 3위 | |
|--------|-------------|------|-------------|------|--------------------|------|
| | 사망 원인 | 구성비 | 사망 원인 | 구성비 | 사망 원인 | 구성비 |
| 1-9세 | 운수사고 | 18.4 | 악성신생물(암) | 14.2 |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8.9 |
| 10-19세 | 고의적 자해 (자살) | 24.3 | 운수사고 | 22.7 | 악성신생물(암) | 14.1 |
| 20-29세 | 고의적 자해 (자살) | 44.9 | 운수사고 | 16.6 | 악성신생물(암) | 9.2 |
| 30-39세 | 고의적 자해 (자살) | 33.9 | 악성신생물(암) | 19.2 | 운수사고 | 8.9 |
| 40-49세 | 악성신생물(암) | 28.1 | 고의적 자해 (자살) | 16.9 | 간 질환 | 8.4 |
| 50-59세 | 악성신생물(암) | 37.7 | 고의적 자해 (자살) | 9.5 | 심장 질환 | 7.4 |
| 60-69세 | 악성신생물(암) | 42.8 | 뇌혈관 질환 | 9.2 | 심장 질환 | 8.0 |
| 70-79세 | 악성신생물(암) | 33.8 | 뇌혈관 질환 | 13.0 | 심장 질환 | 9.7 |
| 80세 이상 | 악성신생물(암) | 16.2 | 뇌혈관 질환 | 12.3 | 심장 질환 | 11.4 |

(출처: 통계청, 2009년 사망원인통계)

청소년 인구(10-24세) 자살율 (2010)

청소년 인구 전국: 9,667,060
자살자 수: 926

청소년 인구 서울: 1,865,013
자살자 수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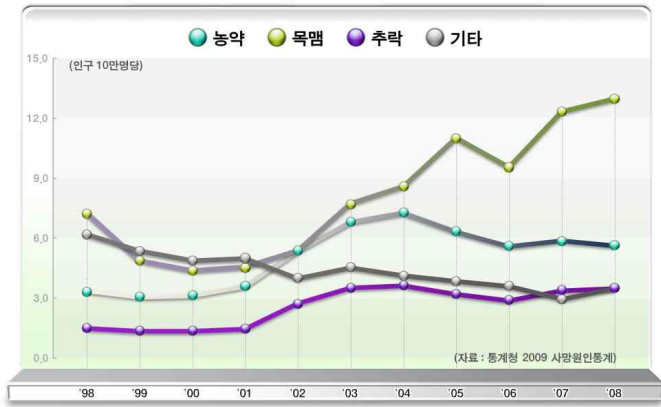
청소년 인구 대구: 516,520
자살자 수 :45

청소년 인구 충남: 404,540
자살자 수: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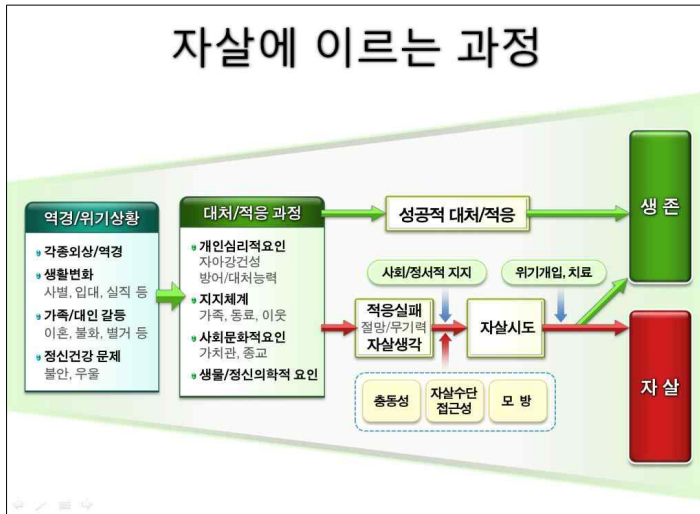
주요시도별 자살률 (2005~2010년)



자살수단별 사망률 변화 추이



자살에 이르는 과정



문제제기

■ 한국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문제

- 정신적 고통의 증가
(이혼율 증가, 자살률 증가, 연쇄살인, 폭력 피해, 분노 Syndrome 등)
- 치료 공동체의 붕괴
(확대가족 해체, 치료 Network의 파괴)

문화적 부조화

서양 문화

한국 문화



문화적 갈등

이중억압(Double Repression)

: 자기소외감(Sense of Self-Alienation)

자기부정(Self-negation)

자아정체감 혼란(Ambivalency of Self Identity)

⇒ 공허감, 무가치감 ⇒ 정신장애, 정신적 고통

청소년 대인관계 특성

- 자아정체감의 확립 시기
- 대인관계 능력 확장
- 자아중심에서 타자 배려
- 충동적 관계
- 가치관의 미성숙

청소년 대인관계 문제

- 왕따현상
- 갈등해결 능력 부족
- 이성과의 문제- 책임성
- 가족간의 대인관계 문제
- 선생님과의 대인관계 문제

청소년 자살 충동

- 성적부진, 진학문제
- 부모님과 갈등
- 친구들과 갈등
- 입시 실패
- 용돈 부족
- 학교 폭력
- 따돌림
- 기타

충동성을 촉진하는 문화적 배경

- 1. 초고속 인터넷과 휴대폰의 등장



- 2. 공동체의 해체
- 3. 자기 중심의 문화
- 4. 지나친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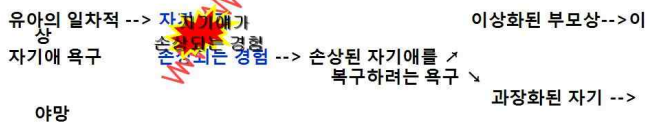
자기애(Narcissism)



(에코와 나르키소스), J.W. 워터하우스, 1889

자기애적 문화

- Narcissism의 문화 (원죄와 자기애)
- Narcissism의 형성과정



DSM-IV의 자기에 진단

전반에 걸친 과대 망상적 환상이나 행동, 존경에 대한 요구, 공감의 결핍 등이 청년기에 시작되고 여러 측면에 존재하며 다음 중 적어도 다섯 가지 이상이 나타난다:

1.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 망상적 느낌을** 갖는다. 예를 들면, 자신의 성취한 재능을 과장하고, 그에 합당한 성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
2. **끝없는 성공**, 권력, 훌륭함, 아름다움 혹은 이상적인 사랑에 집착한다.
3.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고** 독특하며 단지 특별하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믿는다.



DSM-IV의 자기에 진단

4. **지나친 존경을** 요구한다.
5.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 즉 아주 **특별한 대우**라든지 자신의 기대에 대한 자동적인 충족 등 불합리한 기대를 갖는다.
6. **대인간 착취** 즉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들을 이용한다.
7. **공감의 결핍** 즉 타인들이 어떻게 느끼든지 인식하거나 알아 보려 하지 않는다.
8.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믿는다.
9. 거만하고 **도도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한다.



• 좌절경험의 유형

A.너무 과도한 좌절

B.과보호된 환경에서의 좌절 결핍

인내력 지수(Tolerance Quotient)

대처 방안 및 제언:

- **자살예방교육:** 각 학교에 자살예방교육 실시, 교회 공과 공부에 생명존중 교육 강화 (자살예방교육지도자 양성)
- **지역치료공동체(Mental Health Community) 구성:** 치료구조망, 교회간 비상연락망 체제, 정신보건단체, 광역정신보건센터, 병원, 소방대, 가출청소년쉼터와 같이 협조 (목사님, 학교전문가,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와의 연결)
- **생명존중 교육**
- **우울증에 대한 예방:** 우울증 조기 감별, 합리적 사고와 융통적 사고 교육
- **쉼터 운영:** 자살 시도 후 병리적 환경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72시간 쉼터에서 교육과 집중상담실시

- 자살수단 제거 운동: 농약, 다리 펜스.
- 충동성 조절교육: 자기애적 성향의 문화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될 때 참아내는 능력을 가질 필요 있음, 분노해소 프로그램,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 공감적 공동체 형성 (관심)
- 학교폭력 예방
- 사후개입 프로그램

Ellington Bridge



주제발제-(3) 최연수 /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장

“ 사례를 통한 청소년 자살과 자살위기의 예방대책 ”

I. 들어가는 말

10대 청소년들이 하루에 한 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세-19세 청소년 자살자는 353명이었다. 하루에 0.97명이 자살한 셈이다. 10대 사망원인은 2008년까지는 교통사고가 1위였지만, 2009년부터는 자살이 1위로 바뀌었다.

자살 충동에 빠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은 이보다 더 많다. 질병관리 본부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생 7만 3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1만 4135명(19.3%)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학생도 3662명(5%)이나 됐다.

10대 청소년이 자살충동에 빠지는 원인은 다양하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통제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왕따와 구타 등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가정불화나 학교성적비관, 이성문제의 원인도 있다(2012년 1월 12일 A10면 조선일보기사 인용함).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20년 동안 송파구 거여, 마천 지역에서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을 길거리상담소를 통해서 만나게 된 수많은 청소년들이 비록 벼랑 끝에서도 지역 사회 내에서 한빛청소년대안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길을 설계하고 검정고시와 직업 재활을 통한 단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함께했던 기간 동안 좌절이라는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생명을 스스로 버린 청소년들의 아픔도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차곡차곡 쌓여 남은 유가족과 제 마음속에도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떼들보다는 길 잃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양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신다는 성경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듯이 청소년기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자살이라는 막다른 길로 스스로를 충동적으로 내모는 청소년들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종교기관 등이 유기적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함께 해야 하며 아울러 사례를 통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II. 청소년자살의 개념과 특성

1. 청소년자살의 개념

자살이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자살의 동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다.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가정, 학교, 친구, 이성, 학업성적 등 다양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욕구좌절을 경험할 때, 그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급기야는 자신을 공격하게 된다. 즉, 극단적인 자기파괴 행위가 자살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세계와 그 밖의 어떤 누군가와 둘 중에 하나를 미워한다. 자살은 자해이며 일종의 살인이다. 누군가의 증오가 강렬해져 출구를 찾을 수 없으면 자기증오로 전환되며 그 해결책을 자신 하나만 없어야 된다는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Jacobs(1971)에 따르면 자살의 시도자들은 아동기 이후부터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십대에 이르러서 부모와의 갈등, 학교에서의 갈등, 진로 및 미래의 전망에 대한 좌절을 겪으면서 개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정서적 압력을 경험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청소년자살의 특성

성인들은 우울 상태가 자살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인데 반해 청소년의 경우는 충동성이 매우 큰 결정인자가 된다.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분명한 내적 동기가 있지만 직접적인 방아쇠역할은 강력한 충동성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의 자살의 형태는 모방이나 동반자살이 많으며 가정, 학교, 또래집단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외부의 압력이 강해질 때 생과사를 혼돈하게 되면 도피와 같은 심리기제를 적용하여 현실의 고민을 벗어나 사후세계에서 해결하려는 의존성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1) 도피성 자살

학원폭력이나 극심한 왕따 등 불량청소년들의 폭력이나 금품갈취의 협박에 못 이겨 학교가기가 두렵고 학교를 안 가자니 부모님의 야단이 두려운 상황에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딜레마 상황에서 문제해결 방법으로 죽음으로써 도피해 버리는 경우이다.

2) 자기처벌로서의 자살

성취욕구가 높은 청소년이 자신의 기대수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과 주변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못한 자신을 응징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치열한 대학입시지옥의 역기능에 의한 것으로 자신과 가족의 과잉기대에 기인하는 경우이다.

3) 보복심리에 의한 자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거나 타인과의 비교되는 상황에 반발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부모나 교사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자살을 택하여 '내가 죽음으로서 너희도 고통을 받아라'는 보복적인 내면의 심리가 있다. 이는 대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4) 욕구좌절에 의한 자살

자신이 사고 싶거나 하고 싶은 욕구가 좌절될 때 마치 새장에 갇힌 새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창살에 머리를 부딪치는 행동과 유사하다. 성질이 급하고 욕구좌절시 심한 분노 발작을 흔히 보이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Ⅲ. 현장을 통해서 본 자살사례

청소년의 자살은 가정해체 및 갈등, 학교폭력, 또래집단 내 갈등, 성적문제, 이성문제, 약물과다복용, 우울증 등으로 강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내제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충동에 의해 자살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성장하는 청소년도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스스로의 생명을 버린 아직 피지도 못한 청순의 꽃이 떨어져 버린 아픔의 경험도 가슴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기에 이러한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자살유가족을 체계적으로 돕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1. 사례1 장기 가출청소년 투신자살

18세 남자청소년 부모님의 이혼과 학교중퇴로 방황을 하다가 서울로 가출하여 비슷한 또래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본드를 흡입하는 횟수가 증가되었고 추석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갈 곳이 없는 외로움을 비판하다 본드를 흡입하던 중 환각상태에서 자신이 새가 되어서 세상을 날고 싶다는 유서와 함께 투신자살을 실행하였다.

2. 사례2 연예인 모방자살

모자가정의 19세 된 남자청소년으로서 어머니의 식당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었으며 본인은 학교를 다니면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다가 연예인 자살사건이 보도되면서 다음날 새벽에 집에서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먼저 간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메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하였고 지금도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생

활하고 있다.

3. 사례3 여자 친구와 이별을 한 후에 자살

가정결손과 학교중퇴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생에서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저 세상에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유서와 함께 순간적으로 여자 친구의 옥상 베란다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하였다.

4. 사례4 우울증으로 장기적인 치료를 받다가 자살

우울증으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를 반복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다가 지난봄에 이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결국 자살을 하였다.

IV. 현장에서 자살예방 사례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자살은 대부분 다양한 갈등을 내제하고 생활하다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자살충동이 일어날 때 누군가와 소통할 사람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이기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1. 사례1 가출여학생 찢질방 화장실에서 자살시도

몇 해 전에 지방에서 가출을 하여 몇몇 친구들과 이곳 센터를 찾아오게 되었다. 부모 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한 상황에서 새엄마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서울에 계시는 친엄마를 만나려고 가출을 하였다. 친엄마로부터 너 계속 가출하면 나도 너를 만나 주지 않을 것이라는 꾸중을 듣고 우울한 상황에서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갈 수 없다며 이곳 센터에서 차비를 얻어 찢질방으로 들어가 찢질방 화장실에서

손목을 그었고, 마침 함께 간 친구가 긴급한 연락이 와서 인근병원 입원을 시키고 시골에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가족 상담을 병행하여 무사히 고비를 넘기고 지방에 있는 간호전문대학을 진학하여 간호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2. 사례2 자살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전화로 SOS

13세 때 가출을 한 여학생으로서 많은 실패와 다양한 많은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임신 및 낙태의 경험과 가족으로부터 받은 많은 상처로 인하여 성인이 되면서 더욱 우울감이 심화되면서 순간적으로 자살충동이 들면 새벽에도 전화를 걸어 자살충동의 무서움을 호소하고 혹은 손목을 긋고 두려우면 연락을 하는 등 수년 동안 반복을 하다가 지금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검정고시도 합격하여 지금은 조금 더 안정된 상태이다.

3. 사례3 남매의 반복된 자살충동과 시도

가정해체로 인하여 학교부적응을 동반하면서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따돌림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학교등교를 거부하고 남매가 집안에서만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웃의 소개로 이곳 센터로 연결이 되었다.

이곳에서 검정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오빠와 동생이 돌아가면서 자살충동과 자살시도로 손목을 긋는 과정이 반복되었지만 이제는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아직도 우울감은 내제되어 있기에 메신저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4. 사례4 비만 내리면 한강으로 달려가는 청소년

어린 시절 어머니는 가출을 하고 아버지와의 연락도 끊기고 고시원에서 장기간 생활을 하다가 이곳 센터로 연결이 된 남자 청소년으로서 항상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자신도 모르게 한강다리를 걷게 되고 순간적으로 자살 충동이 들어 힘들어 하는 청소년이다. 이곳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어 지금은 현역군인으로 잘 생활을 하고 있다.

V. 자살예방을 위한 대안

요즘 중학교에 들어가서 미래의 꿈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절반 이상이 꿈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굼벩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꿈이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되고 갈수록 가족 간에 소통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내제하고 있으며, 학교환경도 과도한 과열 경쟁의 성적위주의 입시정책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타고난 장점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선 눈앞에 보이는 학업성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학생들 스스로가 꿈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면의 좌절과 분노가 증폭되어 폭력이나 충동적인 자살로 이어진다고 생각되며 죽고 싶다는 이면에는 강한 삶의 욕구가 동반되는 동전의 양면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1. 가정에서의 대안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하면 자녀도 더불어 영향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해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부부간에 건전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법이나 아버지학교, 부부학교,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자살에 예방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와의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대화의 주제가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공부와 대학입시보다는 자녀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강점을 찾고 20-30년 후에 어떤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여하고 소통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때 자연스럽게 고민을 오픈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이 조급하거나 극단적인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학교에서의 대안

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이 떨어지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모든 것이 성적과 대학입시가 연결이 되어 좋은 명문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면 인생의 패배자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함께 생활하는 급우들이 자신의 경쟁자라는 인식이 서로 간에 관심과 배려보다는 상대가 쓰러져야 내가 산다는 경쟁의식이 지배하는 교실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극심한 왕따나 이지메, 학원폭력 및 금품갈취 등, 다양한 문제를 집단 내에서 집단구성원의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한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해결방안을 개인이 혼자 해결을 하려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에서 극도로 소외된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자살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우울감이 높은 학생들이나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공조하여 돕는 과정이 필요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정기교육과 이러한 총동이 밀려올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지역사회의 기관을 소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학생또래상담자교육을 활성화시켜 학생들 스스로가 고민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지역사회중심의 대안

우리의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에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전문기관에 청소년전문가들이 지역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찾아가는 상담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각 지역마다 가정, 학교로부터 소외되거나 다양한 분노를 가진 청소년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을 중심으로 또래집단을 형성하며 자신들의 아지트에서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게임방 및 노래방을 출입하거나 자신들만의 독특한 소통을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전문가들이 현장으로 들어가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소통하는 지역사회중심의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돕는 과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4.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망 구축

매년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매년 7만 명이라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배회하고 있다. 이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정해체나 결손의 역기능 가정이 많으며 학원폭력이나 왕따를 경험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며 이들이 갖는 분노나 피해의식이 강하고 우울감도 더불어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을 위한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관리와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중심의 대안학교 및 다양한 청소년들의 진로코칭센터를 세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미래의 꿈을 설정하고 어려운 현실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자살예방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절실하다.

5. 지역사회 종교기관 및 교회의 역할증대

우리의 청소년문제는 가정과 학교, 국가만의 힘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종교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의 기독교에서는 교회의 성장에 방점을 두다보니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성도수를 늘리는데 급급하였고 그 지역 내 혹은 성도들의 어두운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극단적으로 소외감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는 이웃에게 자살은 살인행위이며 지옥에 간다는 극단적인 결론만 말했지 그들의 자살은 우리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 교회의 문제라는 자성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넘기고 쉬쉬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제는 교회가 나서야 한다. 지역의 청소년문제와 사각지대에서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문제, 아울러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는 수많은 자살자들을 돕고 예방하는데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단에서 설교로 그리고 전문교육으로 혹은 교회 간에 유기적인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한 효과적인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Ⅵ. 글을 마무리하며

한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다. 매년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역으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살 숫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우리의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매일 하루에 한 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분명 병든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다. 가정이 해체되고 학교부적응 및 탈학교청소년문제, 학원폭력문제, 자살의 문제 등 이를 한 개인의 문제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숫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이 문제가 타인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도 자살의 문제를 쉬쉬하거나 단순한 마귀의 장난이니, 지옥에 간다는 단순한 논리로 해결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성도들의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살자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돕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성도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다양한 교육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중심의 유기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번에 설립될 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각 교회들이 크기와 숫자경쟁의 방점에서, 성도들의 내면과 지역의 어두운 부분을 섬기려는 예수님의 생명사랑, 이웃사랑에 방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따라서 목회자들을 위한 계몽과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제직들과 성도들의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은 복지영역에서나 교회학교에도 항상 사각지대에 있다. 이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아울러 자살예방교육과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요구된다.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부설 중등대안학교 '세움' / 사랑의 학교(자립)
www. hi-dreamer.org 02)404-3618

[참고문헌]

- 임영식, 조아미, 하상훈 공저,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실태(2004)
- 최병목, 청소년 자살 예방론(2002)
- 하상훈, 청소년자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2003)
-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자살예방 구축방안(2007)
- 송영미, 청소년 자살충동요인과 예방교육에 대한 연구(2000) /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 한국청소년상담원, 자살예방 자살위험군에 대한 개입 및 치료 자살생존자 대사의 사후개입(2007)
- 십대청소년자살문제 / 조선일보(2012,1,12. A10면)

단체소개-[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기윤실은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987년 김인수, 손봉호, 이만열, 이세중, 이장규, 원호택, 장기려 선생 등을 통해 시작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지난 20여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 이 사 장 :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 공동대표 : 박은조(분당샘물교회 담임목사), 백종국(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전재중(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단체소개-[2] 목회사회학연구소 club.cyworld.com/kpsi

목회사회학연구소는 목회사회학 Pastoral Sociology 학문을 통해서 신학과 사회학의 간학문적 대화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연구단체입니다. 본 연구소는 다양한 저술활동과 공개세미나 등을 통해 현대인의 종교성, 지역공동체, 자살예방 등에 대한 연구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 발간도서 :

그들은 왜 가톨릭 교회로 갔을까?(예영 2007),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예영 2008),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예영 2008),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예영 2010)

■ 소 장 : 조성돈(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교수, huioscho@naver.com)

■ 부 소 장 : 정재영(실천신대원 종교사회학 교수)

■ 기획실장 : 장진원(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박사)

단체소개-[3] 크리스천라이프센터 www.christianlife.or.kr



크리스천라이프센터는 성경적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섬김·나눔·치유를 통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직장,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이 사명을 중심으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으로부터 분리 독립 이후 지난 4년 동안 건강가정운동, 기독교족상담소, 건강교회운동, 지역사회복지운동과 크리스천아카데미로 각 사업의 협력을 통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사 장 : 이문희(맑은샘광천교회 담임목사)

■ 공동대표 : 노용찬(서호교회 담임목사), 이의용(생활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이진우(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